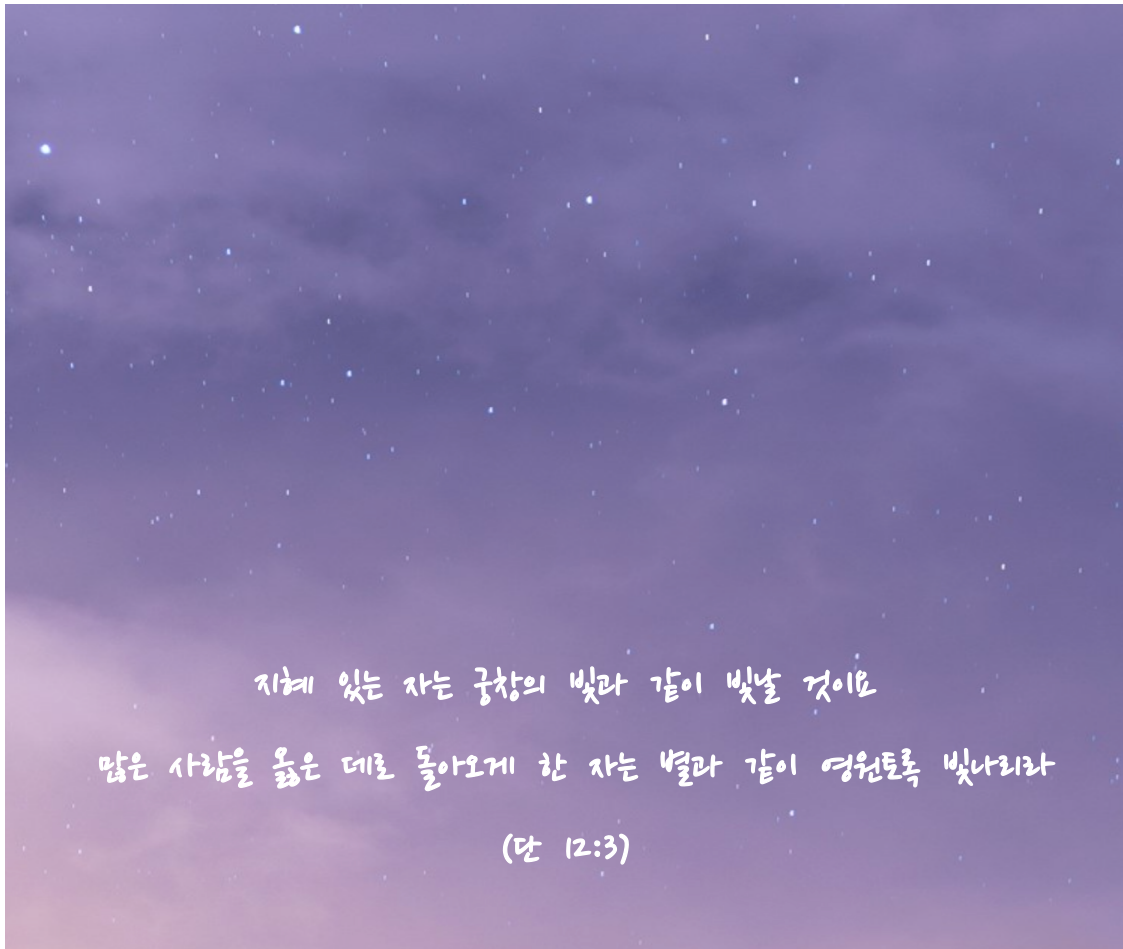


다니엘서



강사:

이름:

1. 7장

1. 네 짐승 환상(단 7:1-8)

1) 다니엘이 꿈을 꾸곤 시기

(단 7:1)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소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

- 벨사살 원 년 cf. 다니엘 5장 - 벨사살 통치 마지막 해
- 다니엘서 본문의 순서: 신학적인 순서에 따른 배치(장르 상 구분)

2) 첫 번째 짐승



- 독수리의 날개 달린 사자 같은 짐승
- 날개가 뻗히고, 땅에 들어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음
- 사람의 마음을 받음

3) 두 번째 짐승



- 곰과 같은 짐승
- 몸 한쪽을 들었음
- 그 입의 이 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렸음

4) 세 번째 짐승



- 머리 넷, 날개 넷 달린 표범 같은 짐승
- 머리 넷은 권세를 받음

5) 네 번째 짐승



- 매우 강한 짐승
- 쇠로 된 큰 이로 먹고 부서뜨림
- 나머지 짐승을 발로 밟음
- 열 뿔이 달림
- 다른 작은 뿔이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힘
-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, 입이 있어 큰 말을 함

2. 옛적부터 계신 자에 대한 환상(단 7:9-14)

- 왕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
-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,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음
-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,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, 불이 강처럼 흘러나옴
- 심판을 베푸심: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에 던져짐
-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심

3.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(단 7:15-28)

- 네 큰 짐승(7:3) -> 세상에 일어날 네 왕(7:17)
- 넷째 짐승(7:7) -> 땅의 넷째 나라(7:23)
- 넷째 짐승의 열 뿔(7:7) ->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(7:24)
- 열 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(7:8) -> 다른 왕(7:24)
-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, 입이 있어 큰 말을 함(7:8) -> 다른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,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함, 때와 법을 고침(7:25)
- 옛적부터 계신 이의 심판(7:10-12) -> 짐승들과 다른 왕의 멸망(7:26)

4. 환상의 의미

1) 네 나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?

- 다니엘 2장에 등장한 금 신상 - 네 제국에 대한 꿈(머리: 바벨론, 가슴과 팔: 페르시아, 배와 넓적다리: 그리스, 종아리: 로마)
- 2장의 네 제국 -> 7장의 네 나라(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같은 짐승: 바벨론, 곰 같은 짐승: 페르시아, 날개 넷과 머리 넷 달린 표범 같은 짐승: 그리스, 아주 강력

한 네 번째 짐승: 로마)

2) 첫 번째 짐승

- 독수리의 날개 달린 사자 같은 짐승 -> 바벨론
- 날개가 뽑히고, 땅에 드러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고, 사람의 마음을 받음 -> 바벨론의 패망

3) 두 번째 짐승

- 곰 같은 짐승 -> 페르시아
- 몸 한 쪽이 들려 있음(불균형) -> 메데와 바사의 관계: 바사가 메데를 취함, 곧 바사가 들린 쪽(높은 쪽)
- 이빨 사이에 있는 세 갈빗대 -> 페르시아가 점령한 세 나라: 바벨론(주전 539년), 리디아(주전 546년), 이집트(주전 525년)

4) 세 번째 짐승

- 표범 같은 짐승 ->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한 그리스 제국
- 머리 넷 ->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네 명의 장군: 카산더, 리시마쿠스, 셀류커스, 프톨레미



5) 네 번째 짐승

- 아주 강력한 짐승 -> 로마
- 열 별 -> 로마 제국의 왕들
- 열 별 사이에서 나온 작은 별 -> 적그리스도

6) 옛적부터 계신 이

- 옛적부터 계신 이 -> 하나님
- 옛적부터 계신 이가 네 짐승과 작은 뿔을 심판 -> 하나님께서 제국과 적그리스도 심판하심
- 인자 같은 이 -> 예수 그리스도

cf. (마 8:20)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
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

-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, 영광, 나라를 주고,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함 ->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

7) 2장과 7장의 관계

- 2장과 7장은 긴밀하게 연결: 7장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하여 보여주고 있음
- 동일한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반복: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
-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!

II. 8장

1.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(단 8:1-14)

1) 숫양



- 두 뿔 가진 숫양
- 두 뿔이 길었고,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, 긴 뿔은 나중에 났음
- 서쪽, 북쪽, 남쪽을 향하여 받고,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고,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음
- 원하는대로 행하고 강하여졌음

2) 숫염소



- 서쪽에서 나온 숫염소
-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도드라진 뿔 하나 있음
- 숫양을 치고, 그 양의 두 뿔을 꺾음
- 스스로 심히 강해져 가다가 큰 뿔이 꺾이고, 현저한 네 뿔이 남

3)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

-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짐
-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, 그것을 짓밟음
-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고,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리고, 그의 성소를 헐었음
-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,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음
- 이천 삼백 주야까지 짓밟히고,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됨

2.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(단 8:15-27)

- 두 뿔 가진 숫양 -> 메데와 바사 왕들
- 숫염소 -> 헬라 왕 /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: 헬라의 첫째 왕

- 큰 뿔이 꺾인 후의 네 뿔 -> 첫째 왕 이후의 네 나라
- 작은 뿔 -> 한 왕

3. 환상의 의미

1) 솟양

- 두 뿔 가진 솟양 -> 페르시아
- 두 뿔이 길었고,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, 긴 뿔은 나중에 났음 -> 메대와 바사의 관계: 처음에는 메대가 우세했으나 바사(긴 뿔)의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, 페르시아 제국을 통합
- 서쪽, 북쪽, 남쪽을 향하여 받고,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음 ->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을 넓힘
-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, 강해졌음 -> 교만의 극치

2) 솟염소

- 서쪽에서 나온 솟염소: 그리스 - 유대를 기준으로 그리스는 서쪽에 위치
-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도드라진 뿔 하나 -> 알렉산더 대왕
- 솟양을 치고, 그 양의 두 뿔을 꺾음 -> 그리스의 페르시아 정복
- 스스로 심히 강해짐 -> 교만의 극치
- 큰 뿔이 꺾이고, 현저한 네 뿔이 남 -> 알렉산더의 죽음과 이후에 네 제국으로 갈라진 그리스를 다스린 네 장군: 카산더, 리시마쿠스, 셀류커스 1세, 프톨레미 1세

3) 작은 뿔

- 네 뿔 중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 ->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
-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짐 -> 영역을 넓혀갔고,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향할 것
-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, 그것을 짓밟게 될 것 -> 안티오커스 4세가 유대인을 박해하고, 학살하게 될 것

cf. (출 7:4)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,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

(단 12:3)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

(창 22:17)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

-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 ->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
-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리고, 그의 성소를 헐었음 -> 안티오커스 4세가 칙령을 내려 성전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제사를 폐지시키고, 성전에 우상을 세우며 성전을 모독하게 될 것
- 진리를 땅에 던지게 될 것 -> 안티오커스 4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시키게 될 것

∴ 메시지

- 교만하지 말라!
- 하나님은 별들(성도들)을 다 알고 계신다!

(시 147:2-6)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볼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